

# “나와 회사를 키운 90%는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

## 광주일보가 만난 경제사

### 박홍석 하남산단관리공단 이사장

1972년 12월 30일 흥국상사라는 이름으로 사업에 첫발을 내디딘 박홍석(주)럭키산업 대표이사는 지난 50여 년간 다양한 봉사단체의 수장을 맡으며 지역에 헌신해왔다.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하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

1974년 주변의 권유로 광주새마을협의회 활동을 시작한 그는 1981년부터 16년간 북구 바르케살기협회의 회장을 역임하며 바르케살기운동 중앙회 최우수회장상을 수상. 최초로 연속 3회 수상하는 업적을 남겼다. 1995년 대한적십자사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여 2025년 현재까지 20여 개의 봉사단체장이나 후원회 회장을 맡아 조직의 발전을 이끌었다. 그는 경선이나 경쟁 없이 오로지 권고와 추대로 직책을 맡으면서 조직 간 화합과 단결력을 높여 성과를 냈다. 문화·체육·장학·봉사·경제 등과 관련한 공적 업무를 주로 하면서 틈틈이 자신의 사업을 쟁길 수밖에 없었다. 그에게 상흔도 뒤따랐다. 1987년 10월 저축의날 동탑산업훈장을 시작으로 대통령 표창, 장관상, 광주시민대상, 우수중소기업인상, 대한적십자사 광무장 금장 등 20여 건에



이른다.

기업인이면서, 지역 내 경제·봉사 관련 기관·단체를 진두지휘하고, 광주·전남의 국제대회·이벤트·축제 등의 유치·추진에 있어 언제나 가장 앞장서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점은 명백한 그의 공적이다.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실에서 만난 그의 첫 느낌은 신선했다. 평범한 바지와 셔츠에 재킷을 걸친 그는 자신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 팔순 앞둔 지금도 20여 봉사단체장·후원회장 맡아 지역에 헌신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 수습·광양제철소 전력 해결 기억에 남아

정성스럽게 이면지가 적어왔다. 검정색이 몸에 배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매년 수억 원의 개인 재산을 기부해온 그는 자신에게는 아끼고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팔순을 앞둔 그에게 52년간 경제인으로 살아온 그의 속깊은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였는지.  
▲군 제대 후 바로 공직을 선택했다. 상사들의 따뜻한 배려와 직장 분위기가 덕분이다. 정년까지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결혼 후 자녀들이 생기면서 교육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젊었을 때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도전해보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시작하기 전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 번째는 정직하게 살자는 것이었다. 정직은 저의 철학이자 삶의 기본 원칙으로, 순간적인 이익보다는 신뢰가 장기적으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만든다고 확신했다. 두 번째는 자산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것이었다. 은행 대출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무이자 자금을 빌리는 일도 사양하며, 철저히 제 자산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고 자 했다. 세 번째는 실패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하자는 것이었다. 안

정적인 출발을 위한 전략으로,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결정이었다.

-사업이 성장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  
▲자금과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활용품도·소매업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1972년 12월 30일 '흥국상사'라는 이름으로 소박하게 사업을 시작했다. 앞서의 원칙을 지키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준비했다. 사업 초기 걱정이 있었지만, 고객들의 신뢰를 얻으면서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성장할 수 있었다. 매장을 직접 찾아주는 손님들뿐만 아니라 먼 거리에서도 주문하는 고객들이 점점 늘어났다. 특히 회사에 재고가 없는 상품을 주문받은 경우 제가 직접 대리점 가격으로 구매하여 이익 없이 제공했더니, 고객들이 크게 만족했다. 순간적인 이익보다 고객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를 지킨 노력이 소비자와의 신뢰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었던 것 같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으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밤낮없이 최선을 다했다.

-사업이 초기부터 자리잡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다.

▲1973년 10월이었다. 벌써 52년 전의 일인데, 라디오 뉴스에서 석유파동으로 중동 산유국의 생산량 감소가 우리나라 같은 비산유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도를 접했다. 마침 제가 취급하는 생활용품 중 석유제품과 연관이 있는 상품들이 상당했는데, 우선 재고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레아 고객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적해 두었던 자금과 비상금을 활용하여 검, 파리모기약, 세탁세제 등 석유 관련 상품들을 판매하는 대리점, 출장소, 대형 약국, 공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가능한 전량 매입해 몇 곳에 나누어 보유했다. 두 달여가 지나자 이들 상품들의 가격이 급등하고 품질 현상까지 일어났다. 당시 대리점과 도매상들에게는 절박한 이익만 보고, 고객들에게는 기존 가격으로 제공하면서 고객들의 신뢰를 한층 더 두텁게 쌓았다. 이것이 주변에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회사로 각인 시켜주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마치 몇십년의 긴 세월을 보낸 것처럼, 변화와 도전 그리고 새로운 경험들로 가득한 시기였다.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 더 지혜롭고 단단하게 다져졌다.

-그 뒤에 대기업들의 광주·전남 총판을 시작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인터뷰 전문은 인터넷 광주일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전남지노위, GGM 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6건 전부 기각

### “조합 활동 방해” 등 주장 불인정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전남지노위)가 최근 정의 행위에 들어간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지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6건에 대해 '전부 기각' 판결을 내렸다. GGM 사측이 노조의 과도한 사내 집회 활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고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측은 노조측이 “회사가 조합 활동을 방해했다”는 주

장이 일방적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19일 전남지노위와 GGM 등에 따르면 지노위는 지난 16일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 회의를 열어 노조의 과도한 사내 집회 활동에 대한 회사의 자제 요청과 현수막 철거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측이 조합 활동을 방해했다는 노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노조는 지난해 8월 '캐스퍼 전기차 우선구매 상생협약' 행사장 앞 집회, 10월 점심시간 노조 선전전 방해, 올해 1월 9일 공장 내 현수막 철거, 10일 점심시간 노조 선전전 방해, 14일 공장 내 현수막 철거, 15일 공장 내 현수막 철거 등 6건에 대해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해 회사는 “집회 자제 요청, 과도한 소음 자제 요청, 시설관리권 침해, 근무시간 준수 및 과도한 소음 자제 요청을 했다”고 전남지노위에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설 선물 화장품으로...광주신세계 다양한 선물세트 선보여



19일 광주신세계 직원들이 본관 2층 '설화수' 매장에서 '자음생크림 리치 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추운 날씨와 명절 선물에 적합한 다양한 화장품 선물세트를 준비했다. 광주신세계 본관 2층 '더 후' 매장에서는 홍산삼 성분을 담은 제품으로 구성된 '더 후 기호세트'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전남도, 공공·상생배달앱 3천원 할인 이벤트

전남도가 민생경제 종합대책 일환으로 20일부터 공공배달앱 '떡깨비'와 상생배달앱 '땡겨요'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만5000원 이상 결제 시 3000원 상당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소비 진작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27일부터는 배달비 지원 쿠폰도 사용할 수 있으며, 두 할인 혜택은 중복으로 누릴 수 있다.

전남도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5~2.0%의 낮은 중개수수료를 제공하는 공공·상생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비·광고비가 없어가 명정주는 적은 부담으로 사업체 운영이 가능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은행 KIA타이거즈 V13 달성 기원 예·적금 조기 출시

### 성적 따라 연 0.25%P 가산금리

광주은행이 지난 17일 지난해 KIA타이거즈의 V12 달성을 기념하고, 올해 V13 달성을 기원하기 위한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을 조기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지역 연고 야구구단인 KIA타이거즈의 정규시즌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광주은행 대표 시즌 상품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판매한다. 이번 정규시즌 우승을 기원하며 양현종 선수와 고병일 광주은행장이 가장 먼저 상품에 가입했다.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은 500만~1억원까지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KIA타이거즈의 올해 성적에 따라 최대 연 0.25%포인트(p)의 추가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3.15%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 제공 조건은 ▲정규시즌 우승 시 연 0.10%p ▲포스트시즌 진출 시 연 0.05%p ▲한국시리즈 우승 시 연 0.10%p이다.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적금'은 월 10만~100만원까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정액적립식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팀 성적에 따라 최대 4.05%(기본 연 2.80%)의 금리를 제공한다. 예



금 상품과 같은 조건으로 최대 연 0.2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이벤트 우대금리로 최대 연 1.00%p를 추가 제공한다.

이벤트 우대금리는 KIA타이거즈의 2025년 정규시즌 기록에 따라 ▲팀타율 3할 이상 연 0.10%p ▲40~40(40홈런~40도루)타자 배출 연 0.40%p ▲ 챔피언스필드 방문 인증(최대 3회) 해당 연 0.10%p, 최대 연 0.30%p ▲요구불 평균 잔액 300만원 이상 연 0.20%p를 추가 제공한다. 상품

관련 상세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광주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우리 지역 구단의 V13을 응원하기 위해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을 조기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금융소비자들의 수요와 트렌드를 반영해 지역민의 일상 속에 힘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경총 올 첫 금요조찬포럼

### ‘행복한 조직을 위한 소통 기술’

### 박인옥 박사 초청 강연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이 지난 17일 광주시 서구 지평동 힐리데이인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1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금요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박인옥 박사를 초청해 ‘행복한 조직을 위한 소통의 기술’을 주제로 진행됐다.

박 박사는 행복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웃어야 통한다 ▲배야야 통한다 ▲차이를 인정해야 통한다 등의 3가지 소통 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사례를 들어 소통 방식을 설명했다.



박 박사는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행복할 수 있다”며 “조직 관리 역시 다른 회사 직원과의 비교가 아닌 우리 직원들의 장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광주경총은 오는 24일 '제 1673회 금요조찬포럼'에 강기정 광주시장을 초청해 '광주광역시 시정 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과 함께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김민석 기자 mskim@

에는 주요 지원 분야와 대상, 규모 등이 포함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로또복권 (제 1155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0	16	19	27	37	38	13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4,066,375,179	7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0,821,851	78
3	5개 숫자일치					1,496,091	3,171
4	4개 숫자일치					50,000	160,366
5	3개 숫자일치					5,000	2,654,046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이 19일 “최근 2025년 총 262억원 규모의 지원사업과 입찰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GICON은 민선8기 들어 매년 연간 지원사업, 입찰공고를 실제 사업공고보다 이른 1월에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단체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정보공개는 고불가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 극복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매년 이른 시기부터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들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지역 기업들이 미리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 민생경제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사전 정보공개 된 지원사업 분야 및 입찰정보는 총 118건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 관련 정보 공개가 54건, 140여억원에 달했고, 입찰정보는 64건, 122여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지원사업 정보